



# 화재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발전방향

글 정재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부대표

## 1. 화재의 위험성

불은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지만 반대로 화재라는 씻을 수 없는 재앙을 남기기도 한다. 우리는 모든 일에 불을 사용한다. 불로 전기를 만들어 내고 음식을 조리한다. 불을 통한 가공으로 옷을 만들고 차를 만든다. 따라서 화재는 우리 생활 속에 늘 존재할 수 밖에 없으며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든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우리는 이것을 화재라 한다. 화재는 우리가 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을 때 사람의 의도에서 벗어나 인적 또는 물적피해를 주는 것을 말한다. 불과 2초면 화재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5분이면 집 전체가 화마에 휩싸일 수 있다.

화재는 예방이 최선이다. 화재는 누구도 미리 예상할 수 없지만 예방할 수는 있다. 화재의 본성을 잘 알고 또 화재발생 시의 대처방법을 사전에 숙지하여 준비하면 최소한 당황하여 불의의 사고를 확대시키는 결과는 줄일 수 있다.

대부분의 화재는 사람들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다. 음식물 조리 중 자리를 비우거나 화기시설의 잘못된 사용, 담배꽂초 방치 등과 같은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매년 2만 건 내외로 발생하고 있으며, 대구지하철 화재나 승례문 화재와 같이 나쁜 의도를 갖고 불을 내는 방화도 증가하는 추세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느 곳에서도 화재의 발생가능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가정해야 한다. 화재가 발생하면 갑자기 혼란한 상태가 되며, 누구나 놀라고 당황해서 침착한 대처를 하기가 어려워진다. 또한 화재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될지 예측하기 어려워 상황에 따른 대응방법을 사전에 숙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화재에 대한 의식을 제대로 갖추고 있다면 사고 예방은 물론 적절한 대응을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우리의 안전문화 정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2. 화재사고 현황

소방방재청 화재통계에 의하면 최근 수년간 화재 발생 건수는 연평균 45,000건 정도로서 매일 120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다. 장소별로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 주거장소에서 25% 정도가 발생하고 있으

며, 위탁시설, 오락시설, 음식점과 같은 생활서비스 공간에서 주택화재의 절반 정도가 발생하고 있다.

발화요인으로는 주거장소의 경우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약 53% 정도로 가장 많으며, 전기적 요인이 21%, 방화 또는 방화의심으로 인한 화재가 8.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1970년 이후 사망자를 기준으로 한 대형 인명피해 화재를 보면 서울 대연각 호텔에서 LP가스 취급 부주의로 163명이 사망한 것을 비롯하여 서울 대왕코너에서 전기결함으로 88명, 부산 대아호텔에서 석유난로 부급 부주의로 38명, 인천 라이브호프에서 불장난으로 56명, 대구 중앙로역 지하철 방화로 인해 192명, 부산실내사격장에서 화약 관리 소홀로 15명 등 수년마다 대형 인명피해 사고가 있었다.

과거 대형 화재사례를 보면 발생장소나 이유도 다양하여 앞으로도 어디서든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언젠가는 나타나게 되어있기 때문에 항상 준비를 하고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기술과 장비의 개발, 홍보 등 다양한 안전대책이 강구되지만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지키려는 자구 노력과 화재안전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 3. 화재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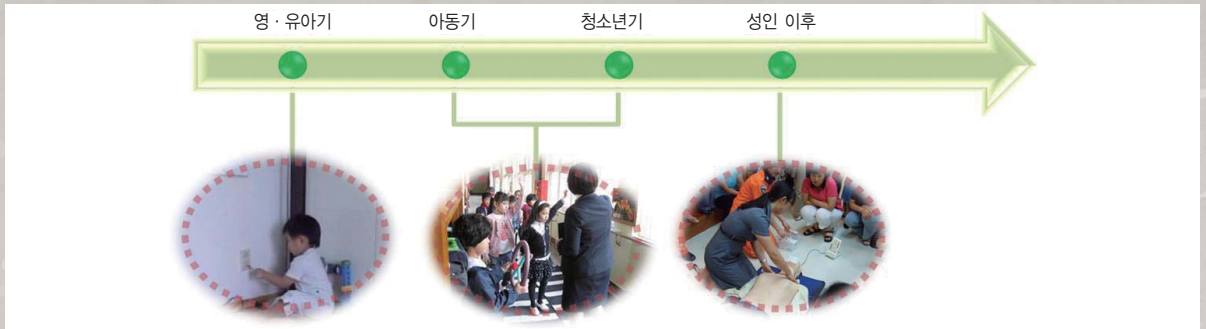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안실련)에서 지난 2월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화재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에 따르면 국민 10명중 6명 이상, 64.1%는 우리사회의 안전관련 기반시설과 제도 등 안전 시스템이 열악하다고 답변했다. 특히 75.4%의 응답자는 우리 국민의 화재 등 안전의식이 낮은 편이라고 답변하는 등 안전문화의 확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2009년 국민안전의식 높이기 방안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가까운 46.4%가 안전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 안전교육은 안전문화 정착에 가장 효과적이고, 국민들이 원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현 교육 운영체계 상 특화된 교육교재 부재, 형식적 교육 운영 및 전달 체계 미흡은 앞으로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다.

화재를 비롯하여 부주의가 주요원인이 되는 사고는 예방 교육의 반복학습으로 안전의식 습관화를 실천해야 하며, 새로운 재난 현장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교육의 전문교재 개발 및 체험식 교육 시설 확충을 통한 안전교육의 내실화를 이루어 내

인성 교육의 원리	실천 교육의 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격에 관한 교육</li> <li>■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고 복지에 관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을 통하여 안전태도 및 습관을 형성</li> <li>■ 잠재적인 위험상황을 예측할 수 있고 올바른 대처 기술 습득</li> </ul>
일회성의 원리	지역적 특수성의 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1회의 교육 실시 여부에 따라 생존과 사망을 결정할 수 있는 특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형, 산업, 인구구조 등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시</li> </ul>



[그림] 생애주기에 따른 지속적인 평생교육

야만 한다.

우리 국민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다. 2010년 기준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전체 화재의 약 43%를 차지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화재가 바로 사람의 실수에 기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잘 모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괜찮겠지”, “별일이야 있겠어” 등의 무지·무관심, 조기교육 미실시, 안일한 생각 등이 바로 화재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이다. 또한 이것은 화재 예방교육을 통해서 바르게 알고 실천하면 사전에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

#### 4. 발전방향

각 기관들은 화재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체험+참가+학습”을 통한 단계별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체험형으로는 안전체험관 등 전용 체험시설 건립·운영 등을 통해 안전의식을 기를 수 있는 각종 기구들을 즐기며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이며, 참가형은 열린 소방서 운영 등으로 목적의식을 가질 수 있는 형태의 학습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학습형은 흥미를 유발한 안전교재 등을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내년부터 초·중·고등학교의 주5일제가 전면 실시된다.

주5일제가 실시될 경우 정부에서도 토요일을 학생전용체험 시간대로 운영하여 더 많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가장 효과적인 것이

바로 화재 및 교통, 생활안전교육의 실시라 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상기 교육에 반드시 필요한 유아, 어린이, 학생 및 성인용 안전교재의 지속개발·보급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도별 안전교재 개발 및 보급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대규모 화재, 풍수해, 지진 등 기후변화 재난발생에 따른 신규 체험형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야 하고, 애니메이션 등 IT 기술을 활용한 흥미위주 접근방법 역시 고민해야 할 것이다.

특히 안실련, KFFPA 등 안전교육 및 계몽에 노력중인 단체에서는 학교 교사들이 할 수 없는 전문가 자문 및 안전교재 등을 활용한 현장위주의 학교안전교육에 노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부에서는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가 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안전교육의 협조 체제 구축을 위해서 정부는 화재 등 안전관리 사항에 대한 정보제공 및 전문가 육성에 집중을 하여야 하며, 민간에서는 IT 등을 활용한 차세대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범국민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투자가 없는 성과는 결코 지속될 수 없다. 우리가 어린이와 청소년 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그리고 안전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는 비용이 아닌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수익성 높은 투자다. 누구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이라면 더 나은 미래와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화재예방과 안전문화를 위한 투자. 바로 지금 시작해야 한다. ☺